

제 1 교시

국어 영역

성명

수험 번호

[1~3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, 제가 ‘일베’ 출신인거 아세요? (청중의 놀람) 몰랐어요? 제가 출신이 일베 출신입니다. 일베 출신, 혹시 이중에도 있으시죠? (청중의 웃음) 꼭 안 나타내도 됩니다. 원래 일베는 숨기고 하는거죠. (웃으며) 제가 왜 일베였냐면,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‘일베’ 라고 정의하는데, 제가 한때 그랬었죠.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릴 때,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6년 동안 제가 공장생활을 했는데, 그 공장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1980년 5.18 민주화운동, 그 때 당시 광주 사태, 또는 광주 폭동, 이런 모양을 봤죠. ㉠그래서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보면서 저 아주 폭도들이 나라를 망쳐먹을라고 파출소 경찰서 무기고를 털어서 국군한테 총을 쏘다가 ‘잘 죽었다, 저거 왜 저거밖에 안죽었냐?’ 뭐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했어요. 왜냐면 주어진 정보에 따라 사람은 판단을 하니깐요. 그렇게 적대심을 가지고 제가 대학을 갔는데, 대학을 갔더니 웬 그 시커먼 옷을 입은 학생같은 사람이 나무에 기어 올라서는 유인물을 뿌리고, 도서관에서 유인물을 뿌리다가 잡혀가고 그러는데, 잡혀간 이유를 보니까, 광주에서 군인들이 막 사람을 죽였다고 써놨길래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는, ‘이야 그렇구나. 확실히 학교에 빨갱이가 많다더니 진짜 많긴 많네’.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한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지나고 나니까, 그 진실을 알게 된거죠. 처음에는 설마, 두 번째는 ‘그런가?’, 세 번째는 ‘내가 잘못 알았나봐.’, 네 번째는 ‘아, 내가 속았구나.’ 이러면서 말이죠. 피해자들을 비난했던 내 입을 떼어 버리고 싶더라고요. 그 정도가 아니라, 수치스럽고, 한스럽고, 억울하고, 내가 몇 년동안 가해자들에게 놀아나가지고, 피해자들에게 똑같이 가해를 하고 있었잖아요, 제가.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그때 알았죠.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. 제가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됐는데, 그 일 때문에 전 인생을 바꿨죠. 공장을 다니면서 겪었던 그 아픔, 참고로 전 장애인입니다. 멀쩡해 보이지만 반쯤 망가졌어요. 코도 냄새를 잘 못 맡고, 후각 상실에 귀도 잘 안 들려요. 소음에 노출이 너무 많이 돼서, 그리고 팔도 휘었죠? 프레스에 눌리면서 성장판 손상으로 비틀어졌어요. 그런데도 단 한 푼의 보상도 못받고 살았는데, 대학을 다니면서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, 바보 짓을 지금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을 완전히 반대쪽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, 전 지금 보이는 이 모양으로 살게 된거죠. 사법고시를 합격한 다음 판검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로 말이죠.

<경애하는 더불어민주당 現 총비서 “李在明“ 동지의 말씀>

1. 위 강연에서 강연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는 집단을 언급하여 청중들에게 놀람을 유도하고 있다.
- ② 표정의 변화를 통해, 청중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.
- ③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소개하며, 청중에게 ‘난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지’ 라는 자괴감을 심어준다.
- ④ 자신의 장애사실을 언급해 청중에게 동정을 유발하고 있다.
- ⑤ 청중에게 웃음을 유발하여 청중의 긴장감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.

2. <보기>는 위 강연자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배경이다. <보기>를 읽고 청중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<보 기>

강연자가 대학생으로 살았던 1980년대는,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던 시대이다. 그 당시 군사정권은 진실을 숨기고 언론을 탄압하였고, 민주화운동에 동참하였던 학생을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는 등의 만행을 일삼았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민주화운동을 멈추지 않았고, 군사정권은 마침내 끝을 맞았다.

- ① 강연자는 왜곡된 언론으로 인해 처음엔 민주화운동에 맞선 학생들을 ‘중북 빨갱이’ 로 알고 있었지만, 대학에 들어간 이후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겠군.
- ② 강연자가 처음에 자신이 ‘일베’ 출신이라고 말한 이유는, 과거엔 민주화 운동에 맞선 학생들을 중북세력으로 알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겠군.
- ③ 강연자가 사법고시를 합격한 이후 판검사가 아닌 인권변호사가 된 이유는 강자를 대변하기 위해서겠군.
- ④ 강연자가 과거 공장에서 자신이 당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대학에 가서야 알게 된 영향에는 그때 당시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이 있겠군.
- ⑤ 강연자가 대학을 다닐 때 누군가 유인물을 뿌리는 모습을 보고 ‘학교에 빨갱이가 많다더니 진짜 많긴 많네’ 라는 반응을 보인 이유는 당시 군사정권이 언론을 탄압하였기 때문이겠군.

3. 강연자가 ㉠과 같이 표현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당시 강연자가 느낀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
- ② 광주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희화화하기 위해
- ③ 국군이 파출소 무기에 공격당했다는 점을 강조해 군대와 경찰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기 위해
- ④ 강연자의 인성 파탄을 청중에게 알리기 위해 **검열**
- ⑤ 폭도들이 파출소 무기를 던 것을 폭로하기 위해